

# 소 산지가격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



신승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축산업은 국내 농업생산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국내 축산업에서 소가 차지하는 의미는 쌀산업과 더불어 단순히 생산액 비중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오던 한육우 산업이 1997년 말 외환위기로 큰 고비를 맞이했고,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소 사육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외환위기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01년 생우와 수입쇠고기가 관세화 계획에 따라서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한육우 산업은 또 한번의 진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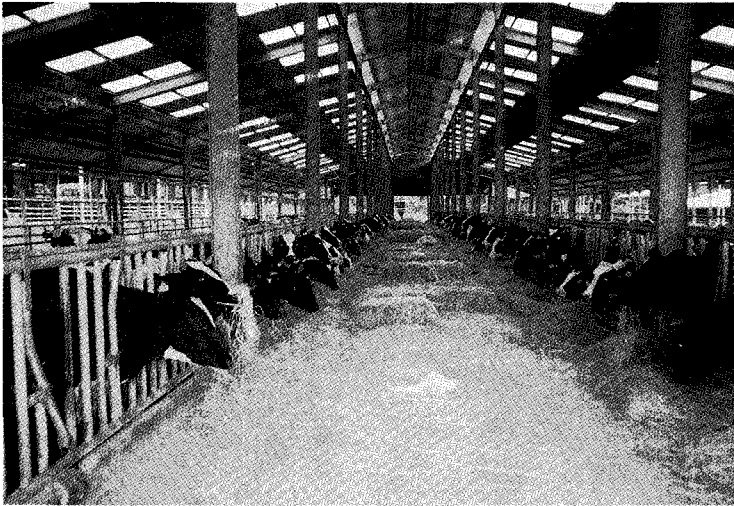
## I. 서론

축산업은 국내 농업생산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국내 축산업에서 소가 차지하는 의미는 쌀산업과 더불어 단순히 생산액 비중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오던 한육우 산업이 1997년 말 외환위기로 큰 고비를 맞이했고,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소 사육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외환위기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01년 생우와 수입쇠고기가 관세화 계획에 따라서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한육우 산업은 또 한번의 진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제 한육우 산업도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해야만 한다. 다른 산업들도 그러하듯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보장받기가 힘들게 되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산업 자체가 정체되고 결국에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농가 단위에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고급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가격 경쟁력 제고방안과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품질고급화 방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생산농가들은 기본적으로 한육우 산업에 대한 현실 인식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져야만 한다. 최근에 소 산지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을 띠자 현재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반가울지 모르지만, 현재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산지가격이 좋다고 현실

에만 안주할 경우, 급변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산지가격이 왜 급등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한육우 사육 및 수급 동향 분석

### 1. 한육우 사육동향

한육우 사육두수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1997년에 290만두를 상회하던 한육우 사육두수는 불과 4년 만에 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2001년 9월 한육우 총사육두수는 148만 5천두로 3개월 전에 비해서는 1.5% 감소되어 사육두수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1년에 들어서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2001년에 생우와 수입시장이 관세율에 의해 완전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농가들은 이런 자유화의 문앞에서 사육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에서도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는 그러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듯하다.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많은 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1997년에 50만 가구이던 사육가구수는 2001년 9월 24만 7천가구로 거의 반으로 감소하였다. 주로 사육을 포기한 가구는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로 자유화의 거센 물결 앞에서 대항할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소규모 농가들의 폐업으로 한육우 사육농가들도 점점 규모화가 되어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번식, 비육, 일관 사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육우 사육을 전문적으로 사육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계속 감소하던 한육우 사육두수는 올 6월 한 때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금년 상반기에 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구제역의 영향이 국내 마스크에 의해 크게 보도가 되면서 쇠고기에 대한 소비가 일시적으로 격감하여 도축두수가 감소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였다.

6월에 150만 7천두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사육두수는 하반기에 서서히 한우고기에 대한 소

비가 회복되면서 9월에 148만5천두로 다시 감소하였다. 6월에 소폭 증가한 사육두수가 9월에 다시 감소한 것은 추석을 앞두고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지 소값이 상승하자 1~2세 큰소 출하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세 이상 암소두수도 6월에 56만 2천두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 추석을 앞두고 암소도축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9월에 2세이상 암소두수는 55만 2천두로 다시 감소하였다.

송아지두수는 2001년에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를 한우와 육우로 구별하여 보면, 한우 송아지두수는 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는 반면에 육우 송아지두수가

조금 증가해서 한육우 송아지두수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태에서 볼 때 한우 송아지두수가 본격적으로 늘지 않는 것은 그동안 한우암소두수가 계속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아지두수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것은 현재를 저점으로 하여 송아지두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 2. 쇠고기 공급 현황

한육우 사육두수가 감소하면 시장에 출하되는 몰량도 줄어든다. <표 1>을 보면 도축두수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1년 상황만을 본다면, 올

해 2월 외국의 가축질병(광우병과 구제역)에 대한 우려가 마스크를 통해 보도되면서 쇠고기 수요가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에 따라 도축두수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한육우 전체 도축두수만을 본다면 금년 2월 한육우 도축두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부진으로 인한 도축감소는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효과와 함께 금년 8월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가 살아났고 도축감소분의 폭도 점차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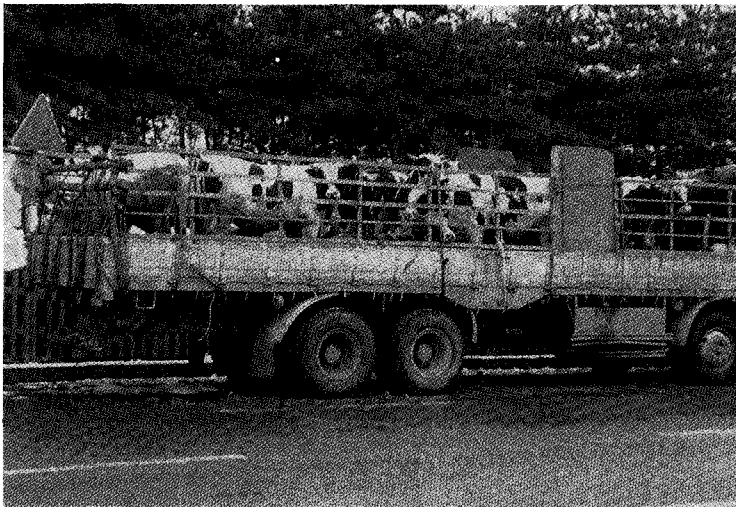
올 7~8월의 경우만을 본다면, 한육우 전체 도축두수는 11만두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26% 감소하였다. 비록 도축두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시장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어서 소 산지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암소도축실적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서 전체 도축두수 중에서 암소가 차지하는 암소도축비율도 계속해서 하락하였다. 과거의 경험으로 본다면, 암소도축비율 감소는 앞으로 태어날 송아지두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의 가축질병발생 우려에 따른 소비감소효과와 산지 밀소부족에 따른 송아지가격 상승으로 암소도축이 감소한 것

<표 1> 한우 도축두수중 한우암소가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이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99	55.7	49.5	56.7	55.7	56.7	57.1	61.4	61.3	56.5	62.5	61.2	60.7
2000	56.0	60.7	58.5	55.3	55.8	57.9	58.8	54.7	52.6	57.7	59.4	58.6
2001	53.7	60.3	57.2	55.8	54.6	53.6	51.3	50.1				



은, 향후 암소두수가 증가하고 나아가 한육우 사육두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에 비하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빨리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올 2월에 쇠고기 수입이 작년 동월에 비해 무려 31% 감소하였다.

그런데 5월에는 작년에 비해 무려 61%나 감소하였고, 8월에는 55%가 감소하여 수입육에 대한 소비 기피 현상이 상당기간 오래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올해 7~8월 쇠고기 수입은 2만 4천6백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48%나 감소하였다.

최근에 산지 출하두수 부족으로 쇠고기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수입육에 대한 소비 기피 현상은 국내 소 산지가격 강세에 일조를 하는 것이다.

올 7~8월 쇠고기생산량(젖소 암소제외)은 약 2만4천톤으로 추정되어, 전년 동기에 비해 26% 감소하였고, 쇠고기 수입량은 2만5천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8% 감소하였다. 7~8월 쇠고기 총공급량은 4만9천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쇠고기 소비현황 분석

금년 상반기처럼 가축질병으로 인한 소비 기피 현상이 크고 오래 지속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표 2〉 향후 쇠고기 소비에 관한 소비자 조사결과 비교

항 목	4월조사	7월조사	비 고
· 소비를 감소시킴	43%	2%	위축된 소비가 더 이상 적어지지는 않을 전망
· 소비를 현 수준으로	16%	69%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려는 의향이 큼
· 한우 소비증가	14%	27%	앞으로 한우소비가 점차 늘어날 전망
· 수입육 소비증가	0%	2%	수입쇠고기 소비는 당분간 저조할 전망

\*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결과

같다.

올 2월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로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가축질병 발생가능성이 쇠고기 소비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

전년 동월 대비 한우고기 공급(=소비)감소분은 올 2월 46%에서 8월 34%로 전반적 소비는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축질병 발생가능성의 불안심리로 인한 국내산 쇠고기 수요감소분은 2월 54%에서 6월 38%로 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에 9%까지 낮아

져 불안심리로 인한 소비기피 현상은 거의 사라진 듯하다.

반면에, 전년동월 대비 수입쇠고기 공급(=소비)감소분은 올 2월 31%에서 8월 55%로 소비 감소폭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 발생가능성에 따른 수입쇠고기 수요감소분은 2월 47%에서 5월 77%까지 상승하였고, 8월에 57%로 수입육에 대한 소비기피 현상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질병에 대한 기사가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다루어지는 이유도 있겠으나,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쇠고기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년에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기는 가축질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4월과 거의 사라질 무렵인 7월,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2>

4월 조사에 비해 7월 조사결과에서는 쇠고기 소비를 감소시켰겠다는 응답이 적게 나와 하반기에는 쇠고기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육과 수입육의 소비를 묻는 질문에서는 한우고기 소비는 늘리겠다는 응답이 꽤 높아진 반면, 수입육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향과 소비자조사결과로 볼 때, 하반기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입쇠고기 수요는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지속으로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산지가격 동향

한육우 사육두수가 1997년에 293만두로 최고를 이루었고, 산지에 소가 증가하여 소 산지가격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에 따른 사료비 상승으로 사육포기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소 출하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시장에 출하두수가 증가한 반면에 도시 가

계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쪼급 얼어붙게 되어, 한육우 산지가격은 1998년 중반기에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소 사육농가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넘기고 2001년 쇠고기 시장 자유화를 겪으면서 사육농가들이 사육을 많이 포기하는 바람에 산지에 소가 많이 모자라게 되었고, 그 결과 산지 소 가격은 점차 상승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가축질병 파동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입육 대신에 국산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산지 소가격이 급상승하게 된 것이다. 올 봄에 260만원대 하던 한우수소(500kg) 산지가격은 추석을 전후해서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10월 현재 390만원대까지 상승하였으며, 젓소수소는 140만원대에서 180만원대까지 상승

하였다.

### Ⅲ. 한육우 수급전망

#### 1. 단기 한육우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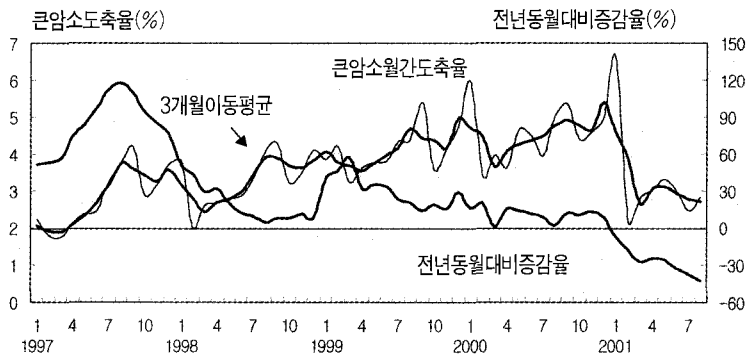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두수는 암소사육두수에 의해 결정된다. 암소사육농가들이 암소비육 출하를 하게 되면, 태어나는 송아지두수도 줄어들고 전체 사육두수도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암소를 비육 대신에 번식사육으로 돌린다면 송아지두수는 늘어날 것이고, 전체 사육두수도 증가하게 된다. 암소사육농가들의 번식의향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암소 인공수정율과 암소도축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에서 전년 동월대비 암소 도축율 증감율(굵은선)을 보면, 올해 1월서부터 암소도축율은 1년전에 비해 하락하고 있고,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이는 암소사육농가들이 1년전

<그림 1> 한육우 암소 월간도축율



주 : 월간도축율 =  $\frac{\text{월별 도축두수}}{\text{월별 1세이상두수}}$

단기적으로 내년 2월까지의 소 산지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내년부터는 송아지두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육두수도 점차 증가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쇠고기 공급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소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향후 1~2년간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지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송아지를 입식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비육기간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소값이 좋다고 하여 무작정 송아지를 입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오히려 그 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소를 생산하여 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좋은 상황을 즐기기보다는 다가오는 내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과 비교할 때 키우고 있는 암소 중에서 시장에 출하하는 암소마리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암소를 비육보다는 번식쪽으로 돌리기 위해 암소를 계속 키우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암소사육농가들이 번식을 위해 암소를 계속 키우려는 경향이 높아졌다면, 과연 얼마나 높아졌는지 살펴보자. 월간 인공수정율이 작년 5월 이후 전년 같은 달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급격히 높아져 있으며, 6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9%나 높아 번식의향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송아지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암소번식의향이 높아지는 것은 산지에 밀소가 부족

하여 송아지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며, 밀소가 부족한 상황은 향후 1~2년간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송아지생산에서 큰 소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계절적인 이유로 송아지두수는 감소하는 시기인 반면,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축두수는 증가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사육두수는 내년 3월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명절이 끝난 뒤 도축두수가 감소되어, 4/4분기 도축두수는 15만 8천두로 3/4분기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4/4분기 생산량은 3만 5천톤, 수입은 3만 3천톤이 예상되어, 총공급량은 6만 8천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지 출하두수 부족으로 한우소 산지가격이 10월에 약 400만

원대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4/4분기에도 이어져, 한육우 출하두수 부족과 수입저조로 4/4분기 한우소 산지가격은 평균 380~410만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2월 도축두수는 약 10만 2천두로 추정되어 쇠고기 생산량은 2만 3천톤, 수입은 2만 4천톤이 예상되어 총공급은 4만 7천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육우 소 산지가격은 연말연시 수요 증가로 연말까지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점차 수입이 증가하고 연말연시 이후에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한우소 산지가격은 내년 1~2월에 평균 360~390만원대로 금년 말에 비해 약간 하락하지만, 한우 산지가격 강세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표 3〉 장기 쇠고기 수급 전망

구 분		2000	2001	2002	2004	2011
총소비량 (천톤)	국내산	209	156	131	154	208
	수입	187	253	296	293	386
	계	396	409	427	447	594
1인당소비량(kg)		8.37	8.58	8.89	9.16	11.67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1」.

이어질 전망이다. 한우수소 산지가격이 내년초까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육우수소 산지가격도 내년초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2. 중장기 한육우산업 전망

한육우는 약 10~11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6~7년 정도 사육두수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3~4년 정도 사육두수가 급격히 감소한다. 1997년 이후 사육두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사육두수가 증가할 사이클에 와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암소사육농가들의 번식의향이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2002년부터는 송아지두수는 증가하고 전체 한육우 사육두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전망 2001에서 발표된 내용을 검토해보자. 〈표 3〉은 2001년초에 작성된 것이므로 일부 자료에 대한 전망치는 변경될 수 있다.

특히 쇠고기 수입은 가축질병의 영향으로 표의 수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육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가늠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쇠고기 공급량은 2002년부터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산지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2년간은 국내산 쇠고기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하락보다는 가격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뒤로는 소 산지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IV. 맺음말

그동안 많은 걱정과 우려를 자아냈던 생우수입이 말처럼 쉽지 않은 한 해였다.

농민단체 주도하에 많은 사육농가들의 참여로 국내 생우 수입업자도 수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물리력을 동원하여 실행행사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그보다는 수입쇠고기에 밀리지 않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이러한 경쟁력 확보와 아울러서 사육농가의 입장에서 꼭 필

요한 것은 소 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전망을 가지고 농가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사육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기적으로 내년 2월까지의 소 산지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내년부터는 송아지두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육두수도 점차 증가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쇠고기 공급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소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향후 1~2년간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지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송아지를 입식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비육기간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소값이 좋다고 하여 무작정 송아지를 입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오히려 그 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소를 생산하여 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좋은 상황을 즐기기도 다는 다가오는 내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필자연락처 : 02-3299-4272〉